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방안 연구

한선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seonihan@kiep.go.kr

김예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kimyj@kiep.go.kr

박규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ktpark@kiep.go.kr

정민지 워싱턴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mjjeong@uw.edu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산업 발전, 금융포용성 성과 및 현안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을 고려한 디지털금융의 발전 방향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함.
- ▶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금융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핀테크 분야의 수요 증가, 지역 및 국가별 디지털금융 산업의 발전 수준 차이, 최근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높은 모바일 네트워크 보급률에 힘입어 모바일머니가 확산되면서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제약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기업이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자금조달 채널이 다양화되어 투자가 원활해지는 등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가계와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주어 경제적인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지역 및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수준 및 경제 환경에 따라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전략 방향에 차이를 보이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데이터·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수요가 존재함.
 -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비대면 금융서비스 사용을 권고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 내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간 금융 분야 및 디지털금융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① 아프리카 금융 분야 발전 지원, ②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진출 및 투자 지원, ③ 디지털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④ 아프리카 지역 통합 차원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제안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팬데믹 이후 디지털금융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금융의 혁신성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개선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음.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높은 모바일 네트워크 보급률에 힘입어 모바일머니가 확산되면서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제약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주목 받고 있음.
 - 모바일 금융 확산으로 계좌보유율은 높아졌으나 저축,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용률은 여전히 낮고,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의 성과는 지역별·국가별 편차가 커서 아프리카의 금융포용성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분야 발전 현황과 금융포용성 측면의 성과 및 현안을 분석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금융포용성 개선방안과 디지털금융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아프리카 내 54개국의 금융포용성과 디지털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
 - 모바일머니를 통해 금융포용성을 개선해나간 선도국인 케냐,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발전했으나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문제가 남아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지털금융 솔루션으로 금융포용성 문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는 세네갈을 주요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함.
 -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금융의 역할 및 현황에 대하여 문헌조사, 통계 분석, 실증분석 등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실시
 - 디지털 기술과 금융포용성 개선 간의 관계, 팬데믹 이후 디지털금융 확대 현황, 디지털금융 확대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아프리카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금융 모델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팬데믹 이후의 금융포용성 개선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디지털금융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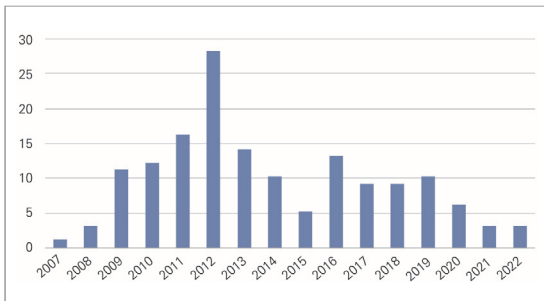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프리카 지역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 아프리카 지역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긴밀하게 연관된 금융 산업 발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2021년 평균 계좌 보유 인구 비율은 55%로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금융 거래에서 소외되어 있음.
 - 국가별로 금융포용성 수준의 편차가 크며, 금융포용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원 보증 서류가 없다는 것임.
 - 모리셔스의 경우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91%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포용성 수준이 높은 반면, 남수단에서는 인구의 94%가 계좌를 보유하지 않음.
- 디지털금융은 개발도상국에서 시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
 -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54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공됨.¹⁾
 - 2007년 케냐에서 도입된 모바일머니 M-Pesa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이후 특히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됨.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환경으로 높은 모바일 보급률에 기대어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모델로 모바일머니 서비스가 발전함.

그림 1. 아프리카 연도별 신규 모바일머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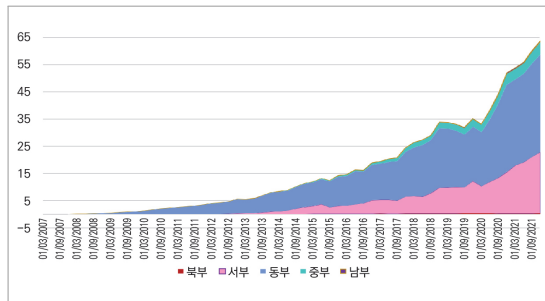
(단위: 서비스 수)



자료: GSMA Mobile Money Deployment Tracker(검색일: 2023. 2. 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아프리카 지역별 모바일머니 거래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SMA Global Mobile Money Dataset(검색일: 2023. 2. 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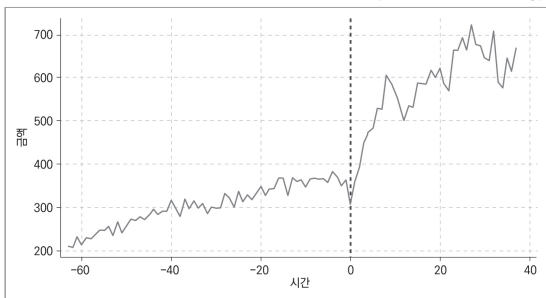
1) 모바일머니는 모바일 기기에 연동된 모바일머니 계좌에 돈을 예치한 후 물건을 구입하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모바일머니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불 방식으로 이용하는 모바일 기술 기반의 금융 수단을 말함.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사용을 권고하면서 아프리카 지역 내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이 가속화됨.

-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및 대면접촉 유인을 줄이고 현금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 팬데믹 상황은 특히 영세·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데 디지털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케냐와 우간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봉쇄 조치 이후 모바일머니 거래액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짐.

그림 3. 케냐의 모바일머니 거래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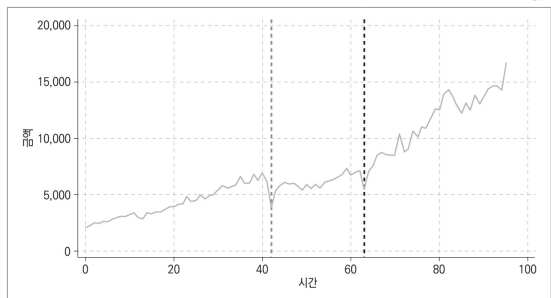
(단위: 십억 케냐 실링)



주: X축은 2015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으로, 코로나19 봉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4월을 0으로 설정한 개월 수를 나타냄.
자료: Central Bank of Kenya 데이터(검색일: 2023. 3.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우간다의 모바일머니 거래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우간다 실링)



주: X축은 2015년 1월을 0으로 설정하여 2022년 12월까지 개월 수를 나타냄. 앞 점선은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2018년 7월, 뒤 점선은 코로나19 봉쇄가 시작된 2020년 4월을 나타냄.
자료: Bank of Uganda의 데이터(검색일: 2023. 3.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 지역 및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수준 및 경제 환경에 따라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전략 방향에 차이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데이터·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수요가 존재함.

- 아프리카 연합 및 지역경제공동체에서는 개별 디지털 전환전략을 마련하여 디지털금융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및 운용과 관련 규제 마련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함.
- 세네갈 정부는 ‘세네갈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과 ‘금융포용성 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통해 디지털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
- 케냐는 아프리카 내 디지털 강국으로, 정부가 ‘디지털경제 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디지털 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 ‘국가 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연달아 발표하고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남아공은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한 국가이나 최근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혁신 금융서비스 발전을 추진 중임.

3)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 아프리카에서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포용성이 개선되고 있음.
 - 디지털금융 서비스는 저렴한 비용, 방대한 에이전트 네트워크,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극복하여 기존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줌.
 -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이 큼.
 -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접근성 확대는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금융회복성을 높이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디지털금융이 확대되면서 시간·비용 감소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저소득층의 금융 거래가 늘어나 금전적인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위험 완화 및 위험 공유 수단이 확대되어 경제회복력이 향상됨.
- 디지털금융으로 기업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면 자금조달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투자가 원활해짐.
 -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도 및 규제, 인프라, 정치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기업 활동이 방해받고 있는데, 특히 금융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됨.
 - 케냐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모바일머니 사용이 금융접근성 및 투자 활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
 - Islam, Muzi, and Meza(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은행의 2013년, 2018년 기업조사(Enterpris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케냐 기업의 모바일 사용 여부와 금융접근성 수준,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

표 1. 실증분석 결과 요약

독립변수	종속변수	금융접근성		고정자산 구입		R&D 지출	
		Ordered Logit	OLS	OLS	2SLS	OLS	2SLS
모바일 사용 여부		0.242** (0.107)	0.066** (0.030)	0.120*** (0.025)	0.764*** (0.163)	0.055* (0.029)	0.359** (0.181)
관측치		1,697	1,697	1,687	1,642	1,686	1,641
Adj R ²		-	0.041	0.154	-	0.123	-

주: 1) 기업 규모, 기업 나이, 대표의 성별과 경력, 무역 수출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 해외 보유 지분이 25% 이상인지 여부, 나이로비 소재 여부, 비즈니스 중심지 소재 여부, 제조업/서비스업/소매업 여부, 지역별 더미, 조사 연도 더미를 통제함.

2) 괄호는 지역 단위로 클러스터링한 표준오차임. *는 유의수준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Enterprise Survey Kenya 2013, 2018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로 △ 디지털금융 상품 범위 확대,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상품 설계를 제시함.

- 디지털금융 상품의 범위가 계좌 개설과 송금 서비스에서 대출, 저축, 보험, 정부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경제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함.
- 상품 설계에도 계좌나 거래 관련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
 - 저축 활동을 촉진하도록 마케팅이나 아웃리치 활동을 제공하거나, 상환기간 유예, 상환주기 연장, 디지털담보 활용 등 대출 채무 상환을 유인하는 등의 상품 설계 필요
-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남녀 간 디지털금융 서비스 혜택에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적·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향후 △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 서비스 상호운용성, △ 전자거래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

-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정부에서 세수 증진을 목적으로 모바일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정책을 도입하면서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모바일머니 거래에 대한 품목세를 도입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 거래의 투명성 증대, 비공식 활동의 공식 경제 편입 등의 경제적인 성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디지털금융을 사용하는 인구층이 넓어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공존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시스템과 기술을 연결하여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지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중요해짐.
 - 이전에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호환을 진행했으나, 최근 정부의 정책하에 중앙기관에서 서비스 호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통신기업 주도로 금융포용성을 빠르게 개선한 케냐의 경우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결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제로 금융 소외계층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금융포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추가하고 있음.
- 디지털금융 서비스 생태계 발전과 효율성 및 안정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아프리카 지역은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법안 도입이 저조한 편으로, 지역 내 16개국에서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범죄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법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분야에 대한 ODA와 민간 투자가 크게 증가함.**
 - 대아프리카 전체 ODA 중 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은 3.3% 수준으로 비중이 높지 않으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 2012~21년 사이 DAC 공여국의 대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는 약 87억 달러로 유상원조(42%), 무상원조(33%)와 함께 지분금융(25%) 형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이함.
 - 독일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최대 공여국이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분금융을 적극 활용함.
 - 미국은 증여성 원조가 주를 이루면서 개발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아프리카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
 - 일본은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를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
- **한국의 대아프리카 금융 분야 협력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개발협력을 활용하면서 국가별 환경이나 제도·규범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아프리카의 핀테크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요국에서는 아프리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독일은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위험도가 큰 시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ODA 자금을 앵커 투자(anchor investment) 형식으로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아프리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투자 보험 상품과 같은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에 특화된 체계적인 정보 및 지원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간 금융 분야 및 디지털금융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① 아프리카 금융 분야 발전 지원, ②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진출 및 투자 지원, ③ 디지털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④ 아프리카 지역 통합 차원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제안함.

● [아프리카 금융 분야 발전 지원]

- 한국의 금융 분야 발전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 또는 제도와 관련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
 -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여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

●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진출 및 투자 지원]

-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필요
 -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성이 높으나, 위험 요인도 많아 진출 시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위험 완화방안 마련이 중요한 만큼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민간 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등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가능
-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협력 확대
 -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고 있어 한국의 디지털 ID 사업을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디지털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 아프리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 추진
-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기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디지털솔루션이 급증하고 있어 인프라 확장 및 개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과 국제기구 및 현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
 -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하게 협력함.
-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바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

● [아프리카 지역 통합 차원의 디지털 전환 협력]

-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이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협력 추진
- 아프리카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
- AfCFTA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국경간 결제 시스템, 디지털 무역 규범 및 디지털 보안, 범대륙 차원의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 등과 관련한 사업 추진 확대
 -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을 아프리카 6개국에 성공적으로 수출한 사례를 기반으로 통관 및 무역 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술 자문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확대 **KIEP**